

임한중 회장, 대한적십자사서 포장 받아



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이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대한 적십자사 창립 95주년

기념식에서 적십자 인도장 은 장(포장)을 받았다. 임 회장의 포장 수상은, 국

내외 기생충 퇴치와 건강 관리를 위한 공익 사업 수행을 위해 오랜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 해 왔고, 평소 사회 소 의 계층 대상의 무료 검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, 최근에는 남북 이산 가족 방문단 후보 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 진을 실시하는 등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 을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이다.

◀6

경남도 · 건협 경남지부, 특수 암 검진 차량 발대식



▲ (사진 좌측) 특수 암 검진 차량 발대식서 김혁규 도지사 등 참석 인사들이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. (사진 우측) 특수 암 검진 차량 내부를 돌아 보고 있는 김혁규 도지사.

경상남도과 건협 경남지부는 지난 10월 13일, 도내 벽·오지 주민과 저소득층, 생활 보호 대상 자 등의 건강 검진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암 검진 차량 발대식을 경남도청 광장에서 가졌다.

이날 발대식에는 김혁규 경상남도지사, 권경석



행정 부지사, 한국건강관리협회 순행모 사무국장 등 관계 인사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 건강 증진에 새로운 활력이 될 암 검진 차량의 도입을 축하했다. (관련기사 31쪽)